

APISC Security Training Course

정보보호 선진 체계 전수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명동 Ibis에서 아태 정보보호 교육이 개최됐다. 올해 교육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에는 14개국에서 24명이 참석했다. 물론 교육 참석 국가 대부분은 아직 IT 인프라나 정보보호 대응체계 수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이들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APISC(Asia Pacific Information Security Center) Security Training Course는 각 국가들의 침해사고대응 역량강화 및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3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사이버 안전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모의훈련을 통해 알 수 있듯, 침해사고에 대비한 국가 간 공동협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정보보호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침해사고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이들에게 매년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 국내외 침해사고 대응체계 공유

올해 교육에 새롭게 참여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키르기스스탄의 CERT 관계자를 비롯해 14개국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교육은 닷새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국의 James N. Duncan을 비롯해, 호주의 Robert Lowe(AusCERT), Cisco의 Susan Reneaue Railton이 강사로 초청돼 침해사고와 정보보호에 대한 이론 소개 및 침해사고 시뮬레이션을 선보였다. 한편, 국내 강사로는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의 서진원, 조진현 연구원을 비롯해 IT 기반보호단의 박상환 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의 김혁준, 심수연 연구원이 각각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스팸대응, 개인정보보호, 전자서명인증체계, 침해사고대응 등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특히 APISC 교육과정은 TERENA(Trans-European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ing Association)와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FIRST(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의 정보보호 교육교재이자 커리큘럼인 TRANSITS(Training of Network Security Incident Teams Staff)가 활용돼 교육의 질적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육 첫째날과 둘째날에는 한국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및 시스템 구축 현황과 각 참가국들의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정보보호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APISC 교육현장



■ 개발도상국 정보보호 역량 강화 필요

한편, 이번 교육에 참가한 참석자들 대부분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현재 정부 주도로 IT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호 사업의 장기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스리랑카 CERT의 Lakshan Soysa는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정보보호체계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경우, IT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인프라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교육은 스리랑카의 정보보호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파키스탄 CERT, Pak-CERT의 Qazi Ahmed는 “교육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주변국가들의 CERT 담당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간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T의 중요성을 깨닫고, IT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키르기스스탄의 Zariyk Jumabek uulu는 “비록 한국에 비해 IT 인프라의 보급률은 낮지만, 머지않아 IT의 발전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국가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런 의미에서 KISA가 마련한 이번 교육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최근의 침해사고 형태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아태 지역 국가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Lakshan Soysa는 “현재는 앞선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이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상호협력 및 경쟁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의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주도해 왔던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대응지원팀 허창열 팀장은 “이번 교육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침해사고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정보보호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교육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S